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下期金融界展望

一

內外情勢多端한 이때에 있어서 朝鮮의上半期金融界는 平穩無事히 지내고 下期에 들어간것은 多幸한일이다. 各銀行業績에 나타난것을보면 各行이모두 餘裕있는 決算으로 期中에는 一分增配를 申請한것도있어서 全體的으로 好成績이었다. [illegible]

二

그러나下期의 銀行業績이 반드시 上期와가치 好續이되리라고 速斷키는 어려웁고 [illegible]

三

預金利下로 預金逃避를 [illegible]

輸出品原料確保等 戰時貿易體制確立

貿易關係閣僚會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現下內外情勢에비추어 速히戰時貿易體制의確立을期하고 商工, 大藏, 農林, 遞信, 拓務의 貿易關係閣僚會議에서 具體策을協議한結果 根本方針을決定하여 [illegible]

一、輸出品原料確保에 對하여 [illegible]

(가) 纖維品에 對하여는 [illegible]

鮮滿貿易經濟懇談會

【奉天電話同盟】朝鮮總督府主催의鮮滿貿易經濟懇談會는 二日午 [illegible]

英領馬來地方 防備를强化

【香港二日發同盟】[illegible]

無謀한孫桐萱軍 開封奪回를企圖

【北京二日發同盟】[illegible]

香港在留婦女子 續續撤退開始

【香港二日發同盟】[illegible]

滿洲國皇帝御入洛 今日伊勢神宮에御參拜

【京都電話同盟】我盟邦滿洲國의 宏謨를 御欽仰, 日滿一德一心의 [illegible]

【宇治山田電話同盟】[illegible]

滿洲國皇帝 御寄贈金傳達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政友久原派解黨 支部長會議서決議

解黨措置는總裁에一任

【東京電話同盟】政友會久原派의 議員의 選任其他準備에 着手하 [illegible]

久原總裁演說要旨

歐洲戰局의 急激한 進展에依 [illegible]

佛支國境要衝確保

【南陽二日發同盟】[illegible]

事務를刷新改善 時局의要請에應하라

地方事務局長會議서南總督訓示

訓示

[illegible]

昭和十五年七月二日

朝鮮總督 南 次郞

蘇土關係大緊張

蘇、다、보兩海峽支配權要求?

【紐育一日發同盟】[illegible]

羅馬尼亞에 獨製飛機到着

【紐育一日發同盟】[illegible]

羅國의運命 二三日內에決定?

【이스탄불一日發同盟】[illegible]

獨紙의對英攻勢 民心動搖를一齊指摘

【伯林一日發同盟】[illegible]

重慶市外北碚場 軍需工場地帶 空襲光景

敵性國家擊攘國民大會

와서, 들으라! 愛國의大獅子吼를!

歐洲動亂의 劫火는 東亞에도 延燒하려고한다 此際 東亞의 盟主로써 任하고있는 我等一億國民은 蹶起하여 東亞의天地를 我等의손으로 保護하지안흐면 안된다 事變三周年! 國民은 敵性第三國을 東亞天地에서驅逐하는使命과 責任을 痛感하는同時에 聖戰目的의完遂를 期하지안흐면 안된다 玆에我等은 "敵性國家擊攘大會"를 開催키로되엇다 와서들으라! 愛國의大獅子吼를! 그리하야 援將, 敵性國家를 擊攘하는決意를 굿게하자 (雨天順延)

時日 七月三日午後五時

場所 南大門左隣神宮外苑(廣場)

主催 春秋會都下六新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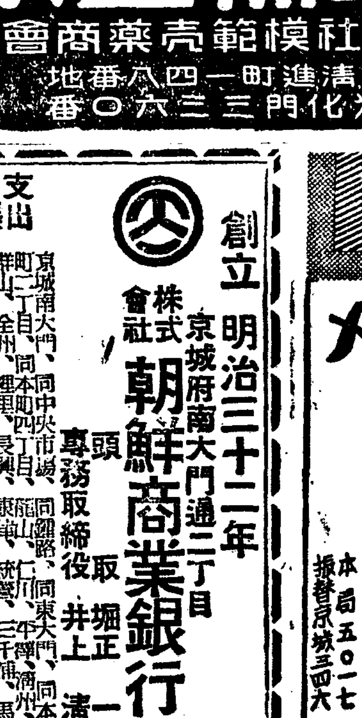
市況(二日)

◆生糸後引◆ [illegible]

參茸補益水
補陰補陽
株式會社模範賣藥商會
京城府淸進町一四八番地
電話光化門三三六〇番
定價五円(送料五十二錢)
全鮮各藥房에서販賣

ベービー散
小兒의설사와 消化不良에
第一잘듣는理想的藥입니다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京城・淸津 新井藥房

登錄商標
南京虫根絶藥
ナンキン
一無効ナラ返金ノ保証付キ
二殺虫力最モ強ク價格最モ安イ
代理店及特約店募集!
京都市西七條衣田町
三山堂

ルール
洋髮香油 黑椿
黑髮의源泉이될것입니다
黑色香油의말로

ハクカタクリーム本舖
大阪製油株式會社

HHH 最高級品
靴를튼튼케하는
靴を丈夫にする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創立 明治三十二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堀正一
專務取締役 井上淸
支店出張所 [illegible]

メガネハ
京城帝大眼科 京城医專眼科 京城公眼科 京城赤十字眼科 御指定
京城本町一丁目入口
中村眼鏡店
本局五〇一七
振替京城三四六

京城特許代理局
內外國特許商標事務
京城府武橋町八九番地
電話本局四一七〇番
振替京城三、九三七番

製藥職工募集
一、製藥(特히注射藥)에經驗잇는者若干名
男女二十歲以下의 通勤할수잇는者希望
者는七月五日午後五時까지 履歷書持參本人來談할事
京城府樽南町一三五
三龍製藥社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消費統制를 一層强化

傳票制도 廣範圍로 實施

必需品以外는 製造도 禁止할方針

新物動計畫과 國民生活

貴해진 曹達灰採取

바숴서 가루로 暴利

琉璃瓶饑饉도 奸商輩의 弄奸

忠南에 豪雨繼續

錦江增水로 交通杜絶

道當局은 移秧督勵班을 急派

【忠南支社電話】 작금 양일간 충남지방에 내린는비로 금강(錦江)이 넘어저 ……

新聞記事因緣으로

再逢한 青春夫妻

通譯李哲鎬君의 그後消息

―深山幽谷 가튼 靜寂한 雅趣― (今日三淸洞에서)

金增産에 拍車

割增金制度創定後

最初의 割增金交附

運用如何에 期待多大

簡易公衆電話

躍進朝鮮의 表情!

本社主催 第四回 寫眞懸賞募集內容

題材의 範圍를 擴大·野心的作品을 廣求

興亞佛教協會

東京에서 創立

食糧配給調査

生存者는 겨우 卅名

死體發見六六名·其他는 不明

覆船된 原因은 定員以上의 乘船으로 推定

徹底된 納稅報國

昨日、府廳에 殺到한 納稅者들

國民의 義憤遂爆發

今日、敵性國家擊攘國民大會

統制經濟障害物

自由經濟의 殘骸歷然

府內商街를 巡閱한 結果判明

平壤陸運、運轉手

待遇改善問題로 動搖

京城女子青年團의

團長은 府尹으로

副團長以下役員은 全部女子

新醫博申台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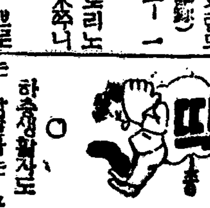
世專出身으로 滿洲國에 勤務中

關學軍이 勝利

東西對抗排球

全來陸上選手權

七種目新記錄



今日

七月三、四兩日間午後三時開場

京城運動場庭球코ー트에서

第一回 全朝鮮 都市對抗硬球大會

【雨天에도開戰】

主催 中央力道館後援會

後援 朝鮮日報社

七月三日(水曜日) 陰五月廿八日 干支丁未

今日 天氣 曇小雨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大投賣斷行

辭典拾册合本一圓五十錢 各册は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進呈品 無代 模範日記

手紙上手は 立身出勢が早い!

▼出征兵士慰問の手紙を始め其他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好評の手紙の本

國民書院日報係 大阪市東淀川區西町四

中部版

咸悅에慈雨 不日內移秧完了

開城白菜聲價維持
種子의檢査機關設置를運動
不正商人이惡種混入

就職貸地를保障 會明鑛取扱處

仁川府勢振興會長 松本淸氏로決定

家賃引上한家主 府內에만百餘名
咸興署斷乎嚴罰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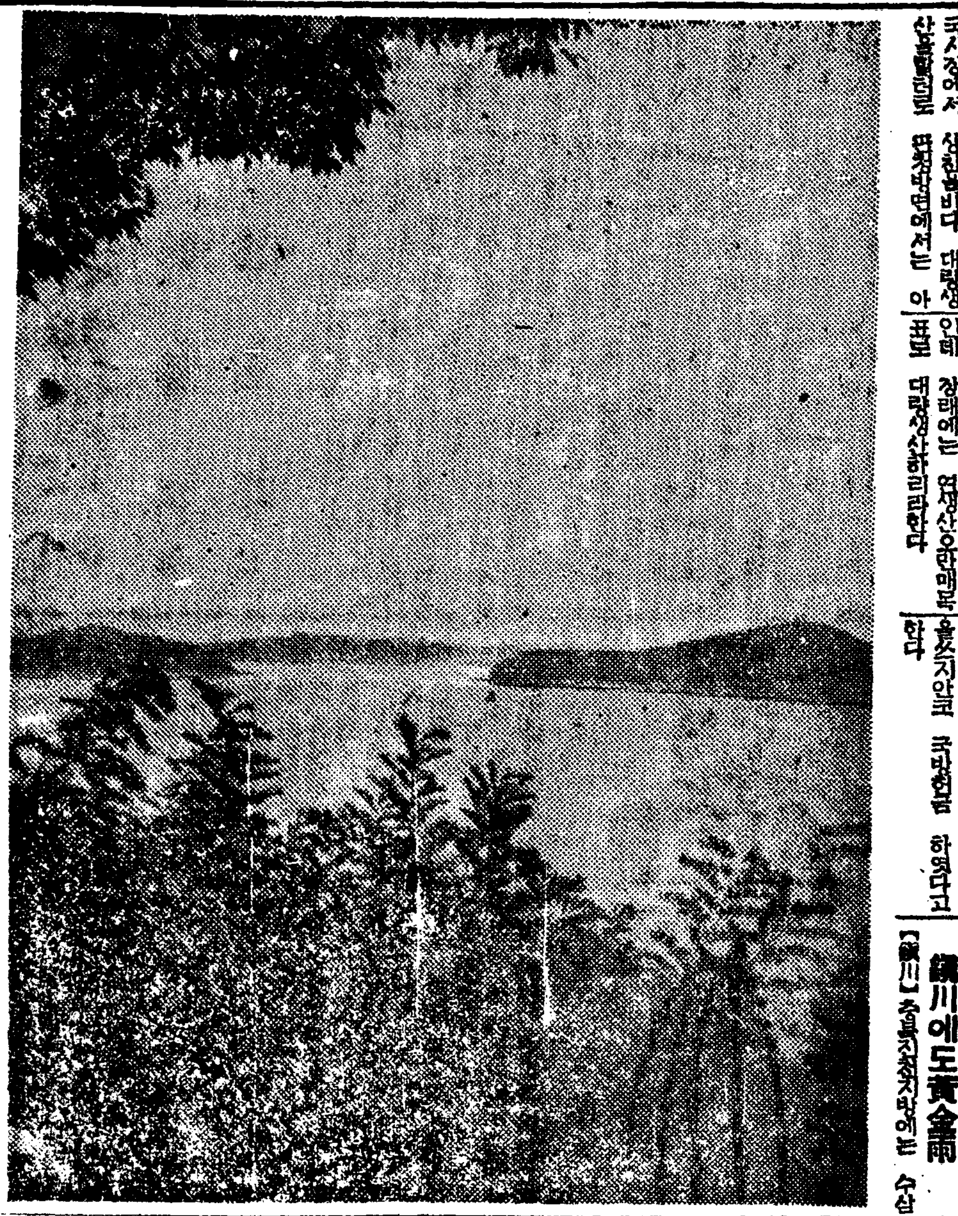
七、七記念日에 警防訓練

慶南道에賞與金 四十萬五千餘圓

製織會社를組織 特産緞通增産策으로

秋穫賞金을獻納

鐵川에도黃金雨



江華島의遠景

文川、新安間鐵道 廿九日敷地買收
朝鮮無煙炭會社에서

日月鑛搬出港 厚浦港으로決定

會寧商校新築 八月中旬頃竣工

開城署非常檢索에 破綻된桃色遊戲
男女二十餘名을檢束

興亞奉公日에 철모른娘子軍 仁川署에留置中

城川江敷地(七十萬坪)는 自作農創定으로
百五十戶는完全更生

堤川署柔劍道優勝

昌原郡棉花 發育成績이良好

道內各主要地域에 商工會를設立計畫
忠南道令으로規則發表

仁川府行事決定 七月七日事變記念日

羅州橋破損으로 榮、光間交通不便

鈴川知事 仁川巡視次來仁

新高山繁榮會 第一回役員會開催

支那事變記念日 馬山府行事決定

松濤園에쓰運轉 七月첫日曜부터

益山에千金雨

各種資財不足으로 學校新築에蹉跌
甲山郡外數個郡에서道에嘆願
初等敎育擴充에異變

統制經濟와 創氏懇談會

廣惠地方에甘雨

漢銀永同支店 上棟式을擧行

大田에長斫饑饉
公定價格이헐하는賣惜傾向과品不足으로
府民들은當局의對策要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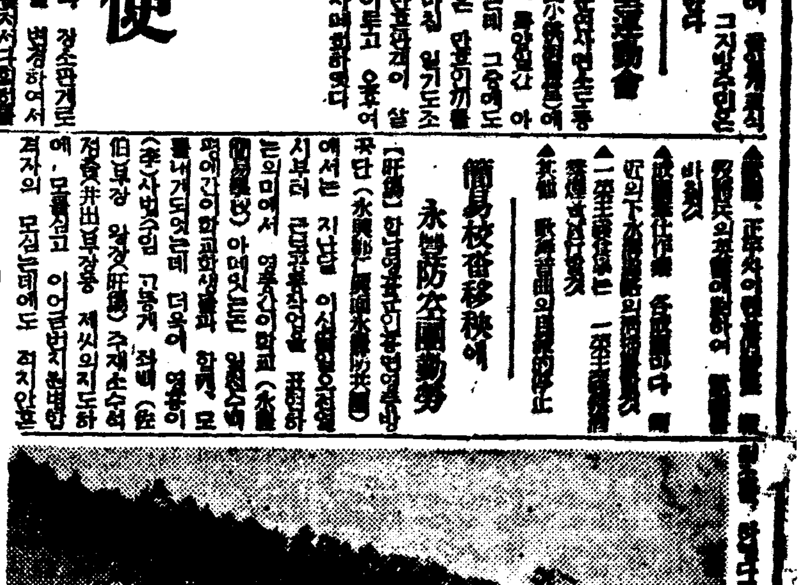
精動報國週間 實施

支那事變三周年 榮州郡記念行事

小學校落成式

簡易校舍移轉에 永興防空團動員

各郡擔任者召集코 雜穀調査協議會
一日忠南道會議室서開催



虎列刺豫防注射 牙山郡仙掌港에實施

安東郡國民貯蓄

漢藥醫生組合 創立總會

漁船救濟週間

社告

蓬島支局 支局長 李元在 昭和十五年六月三十日
球場支局 支局長 張秉學 昭和十五年六月二十八日
咸安支局 支局長 朴承杓 昭和十五年六月二十四日
會寧支局 支局長 裵文述 昭和十五年六月二十日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五番)
耳鼻咽喉科 醫學博士 朴泳敦

젖이적은분에게 母性愛가업는분은 읽지마시요
無代進呈합니다 大阪母乳研究所

國防色羅紗專門 卸商 ミナト羅紗店
申込次第見本進呈 釜山府寶水町一ノ一二四 電話特三七六八番

テーリン 頭痛에
테ー린의効力은— 頭痛, 感氣, 현기증을 速히 解消할뿐아니라 常用하면 腦神經의 榮養을 도와서 明朗하게하며 强心作用이 잇슴으로 心臟을 强하게補하는 優秀한 効果가 잇슴니다. 一般解熱劑나 頭痛藥과 相違하야 全然 胃腸等을 害하지안는 理想的 頭腦良藥입니다.
定價 二十錠 三十錢 五十錠 一圓
東京 中村信治商店 新井藥房 淸津 新井藥房

クラウンミシン
月產六百臺
堅固無比
在庫豐富
發賣元 コーリアミシン製作所

長篇小說

青春茂盛 【94】

李泰俊 作
鄭玄雄 畫

최독주의 것는길(四)

밤이 안경을 다시 쓰기 전에 독수면이 먼저 밤의 생김을 새삼스레 뜨더본다. 다시금 보아야 이쪽을 누르는데는 없는 사나이다. 더구나 이쪽의 기분은 전혀 무시하고 열쌍 무스름이나 빼진사람에게 술을 먹지 못 돈이라면 으레 봇줄고 느리집고 대뜸『마이띠어를 고만두라』하는 투는 사랑이아니라 매수하는 태도다. 독주는 도리혀 밤각이 일어난다.

밤은 안경을 다시 쓰더니 『다마짱은 나라는 남자에게너머 배지일게너까……』 하고 자기소개를한다. 고향은○○산. 양친이 계시고, 조촐한 처가있고, 자식 남매가있고, 떨떨전에 동경 어느대학상과를 나와 싱은(銀)에 취직되어 지점장대리까지 되어 여러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금년봄에 지금 다니는 동서토목의 전무취체로 초명을바더 온것. 안해는 호적상 가족일뿐 생활에 잇서선 전혀 남이것, 부모님도 자식들을보아 이혼만은 못하게하나, 내용에 잇서선 재혼하기를 희망한다는것, 그러나, 노골적으로말하면 여염처녀는 봉치가 잇스니까 와수지안흘것, 화류계여자는 자기가 한 실업회사의 중요한부인만치 은행관계에 신용상 조치못한 영향이 올것이므로 회사를 위해 단념한다는것, 다마짱은 비록 『카페-』에 나안진 미짱해서도 아직 여급으로서의 때가 끼기 전이요, 또 상당한교양이 잇서 조홍인습에 희생된 이런 남자들의 고독한 심경을 동정하는것 갓고 그러니까 형식상 안해가 잇고업는것 따위에는 구애되지 안흐리라 믿기 때문에 거이 자신을 가지고청한다는것 지금 자기는 『아파-트』생활을 하는데 당분간 『아파-트』에 가치 잇서도 조코 문화스런 한채 작만해도조코 다마짱 본위로 그 냥이집에서 살게하고 생활비만 대어주면 그만 아니냐는것, 사정과 조건이 모두 그럴듯하다.

밤은 시게를 꺼내보더니, 영동홀에 모든 도지갓정 갖시간이 되었다고 봉투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일어선다.

『이게 뭐야요?』

『나 나가면 뜨더봐요. 그리고 오늘밤에 내 갈테니 잘 생각 해가지고 대답 해줘요 응?』

하면서 밤은 어깨를 모르고섯는 독주를 안으러한다.

독수는얼는 암마르와 마조지는 미다지를 열어버렸다.

밤의 구두소리가 골목밖게 아조 사라지기를 기다려 독주는 그 동무회사 이름이 찍힌 이 종이를 뜨더봤다. 새와란 봉투 속에서는 백원짜리 한 세지전이 나와다. 『약소하나 우선 이것으로 신변의 대차관계나 정리하시라』는 뜻지가 따라나와다.

독주는 얼른 원선생 생각이 났다. 우선 학교로 나오라고만 잘도 못하던 원선생에다 대이면 이 밤면이란 사나이는 집과, 빼-에 섯채가 있을것을 집에서 하지 세상을 알고, 얼마나 생활을 아는가싶다. 이런 사나이에게 가기만한다면 아직것자기를 죄수와 가치 목거오던 빚이니, 나무니, 옷이니 하는 악착한 포승에서는 영원히 풀리워질것같든, 가는한 욕망이 독주는 무시할수 업는 매력에서 한참이나 한손에 지전봉치를 든채 멍-거니 천정을바라보고 누어있섯다.

이날밤 『마이뜨어』에는 과히 늦지 안어 밤면이가 나타낫다.

독주는 진작부터 취해잇섯다. 집에서부터 술을 마시고 시픈 기분이엿는데 『미세』에 나오니 드리서기가 바뿌에, 그 어머니가 알어서 고향에 갓다던 『나미짱』이 와라달려니 오며 눈물이 글성해 마저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더니…?』

『어머닌 아니구…… 내 인제야 기럿게…… 그런데 다마짱언니 왜 여길 또 나왔수?』

독주도 그만 눈물이 엉겨 이층으로 올라와 둘이 실컷울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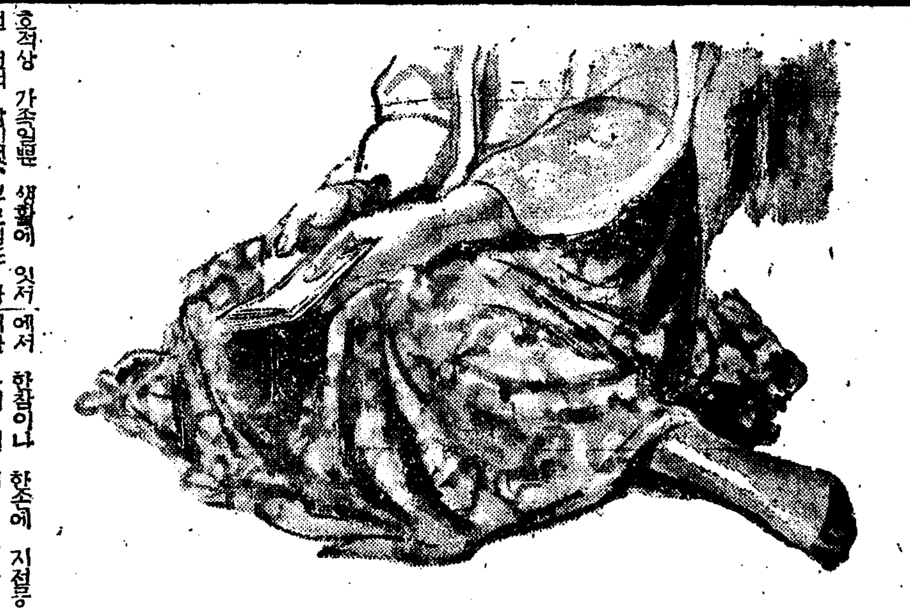
나미짱은 전에 독주가 장산와잇을때도 독주를 펴따르다. 독주보다 한살 아래 학교도 여학교는 마치엿다. 조용한때마다 둘은 수심에 차 정이생긴것이나 불쌍한스나 이는 얼굴이여서 독주가 매편 격려온는 여자로 걱정 업는사람이 누가 있겟수 하고 속사정은 말한적이 업섯다. 그, 비밀이던 속사정을 이날 독주에게 모두 이야기했것이다.

『다마짱언니? 난 사생아라우 언니두 날 무시헐테요?』

하고 나미짱은 얼굴이 새파라케 질리더니

『사생아 내가 또 사생일 낫대단……』

하고 다시 엎드려 울엇다.



野談

唐怪美人 ②

車青吾

그러케 한참동안 잇던중영양일궤서는 다시 여러 근신을 도라보시며 정중하말슴하시되

『나라에 원답 조망지추가 다쳤왓는데 진혼은 한사람도 빠지지말고 다들 다른 자리로 모혀서 나라일을의론하자…』

하섯다. 동시에 어전회의는 열리엿다.

그자리에는 물론 궁녀비빈 내시등만 제하고는 아까 연회에 참석하엿던 문무 백판이며 여러왕족들이 다모혓다.

왕께서는 회의 벽두에 먼저 말슴하시되

수(隋)나라는 전하에 큰나라요 그임금 양광(楊廣)은 또한 호걸로 야심이 만만한 입금이라 한나라(漢)때 이후로 오랜동안 분열되어 잇던 중원(中原)의 천토를 통일하여 그여토의 넓음과 인구의 만키가 옛날 진나라(秦)나 한나라(漢)보다 훨신 지나치고 국부 병강하여 그당당한 위엄과 만만한야심으로 장차 천하를 정복하려고 몃해전에는 벌써 북방의 강족 돌궐(突厥)을치서 항복밧고 남방으로 유구국(琉球國)을 정복하여 조공을밧고서 좀으로 또 서역의 여러나라(西域諸國)를 항복시키고 최후 진국(陳國)까지정벌하여 중원의 남북을 전체통일한 뒤부터 그야심이 더 커져서 우리나라까지 손을 좀 대보려고 몃해전에는 소위 국서(國書)라는것을 우리나라에 보내 말하되

『요수(遼水)의 넓음이 장강(長江)과 어떠하고 고구려의 사람만흠이 진나라(陳)와 어떠하냐고하며 서의 큰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우리의 적은것을 업수이여기어 감히 불신(不臣)하는 오만무례한 말을하엿스나 그것을 단번에거절하엿고 그뒤에 우리의 사신(使臣)이 돌궐(突厥)에게 갓슬때에는 마침 수주양광(隋主楊廣)이 그곳에 거동을 와다가 우리의사신을 만나보고는 자기의 시신 황문시랑배구(黃門侍郞裵矩)의 말을 쪼차여러가지의 모함적 언사를하고 최후에는 또 우후(牛弘)을 시키어 폭언을하되

『고구려왕이 급속히 조공을 할것가든면 돌궐과가치 후대할것이나 그러치 안으면 장차 돌궐의 군사를 거나리고 고구려국토에 순행을 하게다고 까지 오만무례한 말을 하엿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절대로 굴복지 안흘뿐아니라 적국과 국교까지 단절하고 흐른 말갈맥(靺鞨族)으로해은 우리군사로 여러번 적국을 토리천입까지 잇섯슨즉 적국에서, 우리나라를지러움것은 벌써 미리 안일이나 일이 이와가치 급박하게되고 적국은 저라케강대한데 우리는 약하니 어일을 장차 어찌하여야 조흘것이냐.

여러 신하중에 누구던지 조흔 계책이 잇거든 조금도 어려워하지말고 다 말하여라.

나라를 위하여는 만승의 구별도업고 지위의 귀천도 업는것이라 상하 일치하여 오쪽 조국을구할뿐이다.』

왕의 이러한말슴이 끗나매 여러는 더욱 잠잠하고 침울하더니 좌우대신중에서 한사람이 출반하여 아뢰오되

우리 고구려는 말슴하오면 동방의 큰강국이오나 근래에 변방이 다사하여 백성이 전쟁에 피곤한 일이만혓살고 또한 군비가 부족한중에 수적은 이백만 대군으로 불의에 출동하여중원국에 천하무적한 터이온즉 우리나라와 저 큰대국 차는라는것은 마치거란으로는 계두인성과 가라서 결하엿 도리어 나라에 큰해만 몰아오고 이는 일없어이니 먼저 화의(和)를 청하여 금한회를 먼후 차차 뒤일을도모하는것이마땅하겟합니다.

그말이 끗나자 어구석서 구석에서는 그말이 올타는듯이 저각기 그러말을하며 떠들며야 여러사람이 그러케 한참떠든뒤에 청환일원대장이 분연히 나와서크게소리서 말하되

『우리나라는 건국이래로아직까지 남의나라에게 수치를 바더본일도 업고 또아모런 강적에게도 한번도 국토를 빼긴일은 업섯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가장화회잇는 일이요 또 우리민족의 가장 광영스럽고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수적이 천의를 어기고 야심만 가득하야 무명의 군사를 이르켜가지고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오즉 이것은 천지신명이 다기치 노여워할일입니다. 어것을만일 그대로 참는다면 그무엇을 참지못할 배 잇겟슴닛까. 신이 비록 무재무능하오나 우리나라의 충용강장한 백성과 함께한번배성과일선하야우리 나라의수치를 씻고 자손만대에 광휘잇는 역사를 전하야주고자하오니 황송무지하오나폐하께서는 소신의 충성된마음을 하찰하야 주시 옵소서……….』

하니 그말소리 마치 우뢰소리갓고 당당한 자세가 천산에서 뛰어나온 맹호와 가탓다.

일시 거러 그사람은 누구일가 다음회를 장긔기다려라. (계속)

揭示板

若劇에서七月末 東寶俳優들實演

청진(淸津) 동보(東寶)직영의대화극장(大和劇場)의 신축낙성기념으로 오는이십일경이될모양이데 이곳의 낙성기념공연으로서는 동보의스타-남녀사우명의 인사와 실연을 하기로되엿는바 출연할 배우들은 강양이(岡譲二)산전오십령(山田五十鈴)등으로 내정되엿고 돌아가는 길에는 평양, 경성 대구부산등지에서도 동보계통의각극장에서 출연할 예정이라한다.

"아마추어"登山家는? 指揮者를세우고 異性을同伴할땐言動을注意할것 (完)

先頭에

등산할때 언제나 이저버리여서는 안될것중에『석냥』이 잇습니다.

그러나 석냥을 그냥 갑이나 통채로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석냥은 반드시 두개피나 흡우 세개피씩, 따로 따로 『파라핀』종이에다 싸고, 다시 기름종이에다가 싸서 가지고 갈것입니다.

★식량(食糧)

주식품으로서 쌀이나 『팡』가튼것도 일정한분량이 잇습니다만 아모쪼록 허묘지안케 그리고 모자라지안케 준비해가지고 갈것입니다.

부식품으로서는 단지 『간쓰면』만으로서는 실증이 나게되니까 예비식량으로서 상하지안는『오징어』나 조개딸린것 가튼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너무 만히 마시면 피로해지니까 물을 먹는대신 말린 살구나 날오이를 가지고가서 먹도록 할것입니다.

▼……▲

이상과가치 모든 준비가 전부되어서 비로소 등산의길을떠나게 됩니다만, 입부-까이도」중산에 쉐테와 여관등을 미리 출발하기전에 예약하고 그리고『코-스』와일정(日程)가튼데 대해서는 가족어나 보호자에게 자세히 보고하여 충분한 타협을 해두는것이 필요합니다.

산에 들어가서는 단체의인수의 다소를 불고하고 전원이 단결하여서 한몸 한뜻이 되기『리-다-』의 지휘대로 복종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여러한 한계상 가튼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셋씩 혹은 다섯씩『그룹』을만드는것이 이상적입니다만 할수잇서 수십명의 단체로서등산할때에는 다시 네사람혹은 다섯사람씩의 각각패를 나누어서 각각 그『그룹』에다가 『리-다-』한사람씩을 두는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는 동행하는『그룹』에이성(異性)이 섞겨 잇슬 때에는 아모쪼록 오해를 밧게되지 안토록 어디까지든지 말파 행동을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에 잇서서 세사람 이상으로서가치 할것입니다.

등산할때 제일주의할것은조급히 굴지말고 천천히 보도(步度)를 호흡에 마추도록하고, 발바닥 전부를 모도 경사지게 짓고, 그리고 등산용지팡이를 몸 전체가 실리지안토록 가볍게 여끌으로 의지하고 집고 올라 갈것가튼면 한결 피로는 덜어집니다.

또 물을 너무 만히 먹든지 때때로 오랜동안의 휴게를 취하는것은 피로해지는원인이 되는것이니까 이런점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량은 조금씩 여러번 만히 먹을것이고, 하루의 행정은 일직떠나고, 일적 도착하도록해서 반드시날이 어두어서 숙박지에 도착하는일이 업도록 할것입니다.

숙박지에 도착하거든, 땀에 저즌 속옷을 곳버꼬 새것을 입을것이고, 나무그늘이나 풀바테서 잘때에는 평평하고 건조한 곳을 택할것이며 또 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연료(燃料)와 음료수를 구하기에 편리한 곳을 택할것이며 또 강이나 바다근처인 경우에는 물이 들엇슬때의 여편도 미리 염두에 둘것입니다.

『호텔』에 들어갈것가트면 노영(露營)가튼것으로 하루의 『코-쓰』가 재미잇던 일을 어야기하거나 화토(花札)들을 피어노코 그주위에 빙둘러안저서 그들과재미잇는 여러가지 어야기를 주고밧기에 시간이 가고 밤이기퍼지는줄은 모를지만 어것은 어느모로생각하든지 조치안습니다.

정체는 내일의 활동을위하서도 조치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다른사람 한테도미안스럽고 제일수면이 부족하면 내일의 정활을할때에 여간 지장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화토사람들을 피울때는 불이 꺼지기전에 먼저 그주위에흩허트러지 낙엽가튼것도 한군데로 긁어 모아 노코 그리고불피울자리의 주위의 흙을 좀파두는게 연후에비로소불을 피울것입니다.

그뿐아니라 불이다타투에도 수습을 잘해야 될것은 말할것도 업습니다. 부주의한인해서 산화(山火)가 일어나는것을 우리는 종종 『뉴-쓰』로 듯지안습니까.

여편이나 쉬는데에 머물덧다가 다시떠날때에는 그동안 어즈럽혀 논것이라든지 너저분하게 들어논것을 말쩡히치우고 쌀이나 나무가튼것도다 곳사람에 자세히 보고해주어서모사리는것은 보충해 바를것입니다.

▼……▲

요컨대 산에서의 생활이란것은 산이가지고잇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엄한것을 지키고 그래서 산에가는 우리들도 거기에본떠서 깨끗하게고결하게 마음과정신을 가저야 되는것이 필요한것으로서 누가 지키거나 말하지안는다고금하는 식물가튼것도 함부로 채집해서는 안됩니다다.

趣味와娛樂

學生과娛樂

도 ▼…벌써 칠월이다. 여름도 이제부터 본격적 무대로 들어간다. 해마다 그러하지만 대개로 이맘때가되면 도시생활사람들에 잇서서 건강문제와, 좀더 나아가서는 한여름동안의 피서에대한 준비때문에 경황을 몰론하고 바쁘게 될줄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야될 문제는 하기휴가(夏期休暇)와 학생들의 판한 단순한 제다. 사실 학생은 그들이 가지고 잇는바 지육의 정[illegible]

▼…산이고 바다고 어디 돈지간에 떠운 여름을 피해서 그들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현저리도 마음을노코, 그리고 언제나 『나는 빵속에 잇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하는 생각을 이저서는안 된다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론은 하니까 입으로 어야기하기 [illegible]

▼…지금 우리들은 하나의 귀중을 세워노코 [illegible] 극장에 [illegible] 하고잇다. 전혀, 대학을 다니는 [illegible] 생일지라도 그저 어디까지나 학생인이상 절대로『카페-』나 『바-』에 업저이 때도 해서는 안된다. 물론 여기에는 둘을 업지 우리는 찬성할수잇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잇다. 학생들에게서 일시에 영화며 연극이며 그 [illegible] 그 어떠한 정작한 오락을 제시하자 안흐면 안될줄안다.

▼…특히 여름 방학동안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들 [illegible] 가지면 어떤 한 오락 서상에 대하여서 섭섭하게 느껴지는것이 만큼 어찌할수 업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그들의 생의 한부분이된다 할 제입장에서 여름방학동안의 학생들의 건강과오락문제를 신중히생각해야만될줄안다.

文 글

新映畫

貿易風……『테-가-넷』감독하에『리우』가 주연자는『프레데릭·마-치』『조앤·베넷』『앤·소던』등 연애자거리, 탐정극의 흥미를 더하고잇다. 동경에서 [illegible]

幻影의馬車 (佛蘭西映畫)(完)

「쥬-비비에」監督作品

主演…「루이·쥬-베-」

『당신하고는 틀리지 안습니까, 저, 마차 바퀴의 틀아가는 소리가……』

『아-뇨.』

『사신(死神)의 마차다, 사람이 마즈막 죽어넘어갈때나 돗는 마차의 바퀴 소리다. 틀림, 틀림 뛰지 안흐면 저 마차한테 부들러 고만다! 어서, 어서!! 안나! 느 어디 잇는냐, 어디보자 어데에는 절할머지 통하여 놓다 내놀테니-』

『다빗드! 그러케 섯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나빠요, 모두, 모두가 당신의죄에요.』

×……×

너무도 피로하여 『에디쓰』는 어육고 병상의 놈고말겟다.

병은 점점이 악화되어갓다. 그래서 다시는 회복의 희망이엇지 되엇을때 『에디쓰』는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빗드』가 오기를 거다리고 잇섯다.

『다빗드』의 옛친구로서 지금은 구세군에 들어가잇는 『그스타브』는 혼자서 온종히 『에디쓰』를 사랑하고 잇섯스나 지금의『에디쓰』의 심정을 살피고서 『다빗드』를 차저 주려고 『로렌』들에게 부탁을 해노핫다.

그래서 간신히 『다빗드』를 차자내가 『에디쓰』가 지금 병상에서 차즈니 어서 가보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말을 듯지안해다.

가뭇가니 여럿가니 서로 말을 주고 밧는사이에 어는듯 독사람 사이에는 언쟁이 벌어지고 취흥한 기저서 술이취해있던 『다빗드』는 마침내 치명상을 박고 넘어지게된다.

×……×

마침 그러는참에 『희양의 마차』를몰고 『조롯주』가달려왓다.

『다빗드! 나는 오늘 자녀를 다룸러 왓네.』

『아 자네! 『조롯주』가아님가 빨리 잘해준고런』

『작년에 자네한테 한 이야기가 잇는데 아직도 기억하고잇나.』

『엇 그럼 저마차소리는 내가 잡혀을것은 아니엿네그려.』

『그러구요, 그러나까 어떤에는 자네가 내대신 어 마차를 부러야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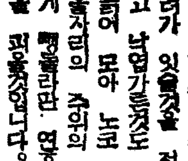
『다빗드』는 『조롯주』에게 재임하여 어떤 한번답 살리달라고 소원을 지르고 울고 하엿다.

『조롯주』는 한삼 기괴생각을 하든니

『자네를 경주 이러케 만든것은 내가 아닌가 인도해기 때문일세. 그럼 어떤 한번만 자네의청을 들어주기로 하지.』

×……×

그리고 죽어가든 『다빗드』는 다시 세상에 되살아가 『에디쓰』의 부탁대로 친절한사람이되어 안해와 자식들에게 깊고사랑하며 살아가든것이엿다. (끗)



「포롯드젠」의配役

▲『파』社의『스포-츠』映畫…『파라마운트』는『와-너-』로부터『웨인·모리스』를 빌려다가『스포-츠』영화『란치다운』을제작한다.

▲『벤·헥트』의演出作品…『벤·헥트』의독립제일회제작영화『컬럼비아』배급의『내주먹이면』에는『리트』자신이감독을담당『토-마스·밋첼』『로-더·스-차나안』와『더글러스·페어뱅스·쥬니어』로결정되엿다.

役…『쥬니어』산하의『데빗드·로-』에와바-등 루인·푸-드의 문제작『에릭하·르말크』원작『포롯드젠』은『죤·크롬웰』감독『프레데릭·마치』『마-가렛트·사라빈』주연으로결정하엿다.

라디오 JODK

一講一演一

趣味의講說(三) (三日午前一一時二○分)

바다 異河潤

바다는 위대하고 장엄하고 신비롭습니다. 그푸른물결이삼켜버린비밀이 얼마나 만흘까요. 그래서 친동에대한전설 해저(海底)사람들의전설, 인어에대한 전설, 용궁에대한 전설등 그것은우리가 간단히로론할수업을만큼 무수하고 그밤게도 배와섬들을삼킨 동서양의 전설이만흐니 시나이용서하는한도에서 실례를도러가며 말슴하려합니다

講演 (三日午後八時)

大楠公이야기 司公桓

대남공은 거금육백년전인 남북조의 충신으로 만세불후의 일본정신을 실현발휘한대표적인물이다. 하내(河內)의일소호족으로 근왕의기를 들고 적판성(赤坂城), 천조성(千早城) 각지에서 진충분투하엿지 행성역(櫻井驛)에서 십일세되는아들 『정행』을 아메로돌려세우고 결신과, 정례를 부탁한 유족 우리들의인으로 하여금 일충위대한 거울이 되오맘할 필요도업다 보라 몃치우신이후 기타의 적정사변에 연전연승, 동아의파를 잡게됨엿이 남공의 충의의감화력이라해도 과언이아니리라.

放送 JODK

三日(水)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콩고조트림』日用品時勢 ▲同一一時二○分 講演 趣味의講說(三)『바다』 異河潤 ▲正午(東) 時報 오늘아러두실것 ▲午後零時五分 室內樂(레코-드) ▲同零時三○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二○分 齊唱과獨唱 여름노래암멈 水鄕靑瓶會 伴奏 崔永燮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一七) ▲同七時三○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大楠公이야기』 司公桓

●農村의밤●

▲同八時三○分 마이크訪問-津川郡內村女子講習所- 여나운서- 宋珍根 ▲同八時五○分 모내는소리(錄音) ▲同九時五分 野談『白日夢』 申鼎言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初步國語講座(一九)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謠曲 ▲同六時 (東)講演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午後八時(東)新漫才 ▲同八時二○分(大)義太夫

四日(木)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二○分 衛生講演『貧血이야기』 醫學博士 白基昊 ▲正午(東)時報 오늘알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三○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分 어린이科學『여름의밤하늘』 韓仁錫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濟解說『貿易의新課題』 朱鍊 ▲同七時三○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郵便局先生이야긴』 金岸基 ▲同八時三○分 混聲合唱 헨델作曲 一、主의榮光 二、어린羊救世主 三、할렐루야 四、凱旋 白鳥混聲合唱團 伴奏 李興烈 指揮 朴泰鉉 ▲同八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公道難 二、唱劇調 興夫歌 金鳳姬 鼓手 韓成俊 ▲同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念佛 二、平調會相 金永植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中等國語講座(六七)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輕音樂 ▲同六時 (大)兒童時間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四○分(東)講談 ▲同八時一○分 (大)朗讀 ▲同八時三○分 (東)談話 ▲同九時 (東)드라마(堤眞佐子)

新人名碁譜

魚腹에風雲潛起

白「壬의一一」飛子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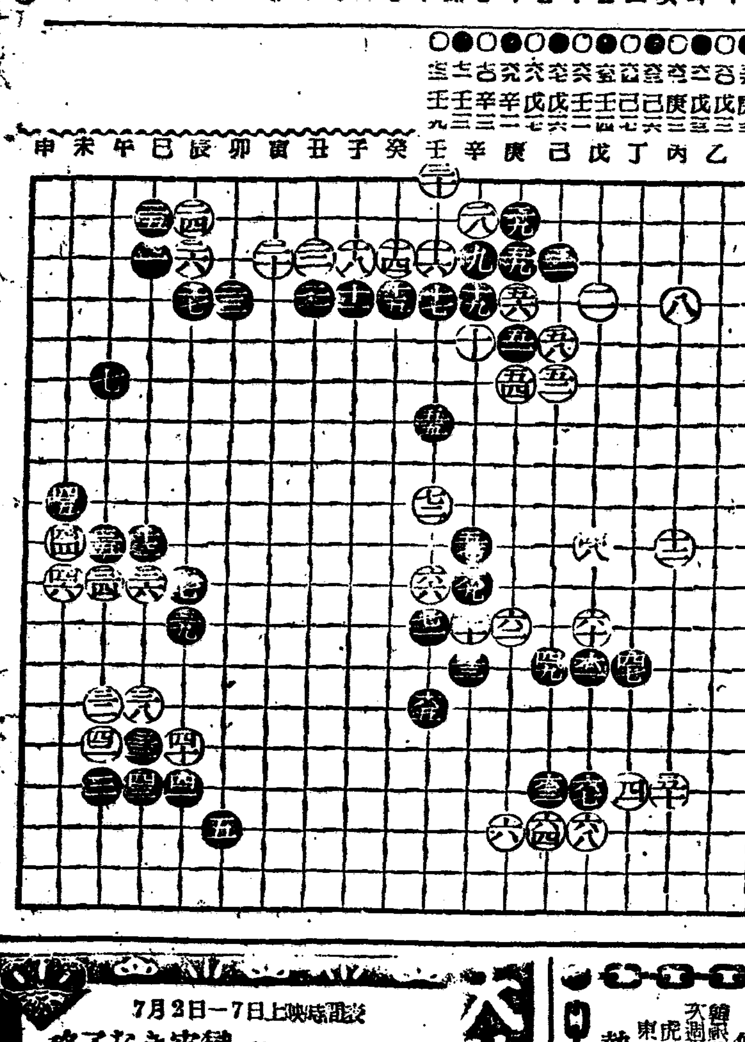
觀戰記 權秉郁

局面은 아직 水平線으로 在하엿다。黑五七이 拔手하여 辛의 一○에 完壁을 圖하니 이는 俟히으로 思한다. 어째나하면 黑五三 五五 五七等 聯合軍이 中宮을 굿게 守備하여 그反映으로 白勢이 無用武之地이다. 白五八과 黑五九는 勿論打一輯이 定則이다. 이 狀況을 常識的으로도 判斷할수가 잇다. 白의作戰法이 더 無力한듯하다. 어찌하여 小黃池에 오르내리는 黑一點을 梅花落地처럼 따고마는가. 차라리 壬의 一○에 進出하엿스면 中央에 黑이 獨全其利하기가 어려울것이로 想定한다. 次白六○ 六二는 惡質妨害로 헤매며侵蝕을 晴計하나 이는敵으로하여금 自强之勢를 助함이다. 그러나 黑六三 六七等도 그리神奇치못한듯 白地를 노리며 맨끄에 주지안는가. 뜻밧게白『壬의一一』飛子込으로 魚腹에 風雲이 潛起하게되엿다.

白 任佑植 · 黑 金在翊 (四日午入田)

【5】

五一 辛二〇 五二 己一五 五三 庚三 五四 戊三 五五 庚一二 五六 戊一二 五七 己一三 五八 己一四 五九 壬一四 六〇 壬一三 六一 戊一六 六二 戊一七 六三 辛一二 六四 辛一三 六五 壬一三 六六 壬九



大陸劇場
7月2日—7日上映時間表
格子なき牢獄 10·30
ニュース 12·12 3·28 6·50
娘よ何故さからうか 12·25 3·42 7·03
格子なき牢獄 1·46 4·58 8·19
(冷房裝置完成)

第一劇場
七月一日ヨリ三日間 晝夜二回 大衆料金
コロムビア社超特作 地獄の秘密 チヤールス スタアレット 主演
東寶映畫會社大作 上海陸戰隊 大日方傳 原節子 主演
朝映特作 春園 李光洙 原作 無情 韓銀珍 主演
次週豫告 七月四日ヨリ 虎敵脫獄 東遊記 熱血決死隊

高協劇場
夏期休暇中

東洋劇場 龍光(二)一五四番 四四九五番
劇團靑春座公演 六月二十六日부터 朴珍作 悲劇『大地의어머니』 四幕五場
『大地의어머니』는 하고가진 苦難을 밧은 人生과 偉大한 母性愛를主題로 한것으로서 天使幼年名花趙美鈴孃의 會演하소연은 滿天下 어머니들의 九曲肝臟을 節節히 끈케할것입니다 鄕土的情緖가 잇는 大悲劇을 支持하소서
近日上演乞期待 金建 作 사랑의 秘密 그女子의 秘密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三日ヨリ十日マデ
ニュース 11·25 2·00 4·35 7·20
アステア ロヂヤース傑作集 11·35 3·10 4·45 7·30
大楠公 前篇 後篇 1·25 3·00 5·35 8·20
舞姬サザ 10·00 13·35 3·10 5·45 8·40
早朝割引 11日ヨリ活動劇映畫大楠公封切

和信映畫館
一日ヨリ七日マデ 開場午前十時半
1、日本ニュース 2、小猫ノ親爺 3、ミッキーの カーボーイ 4、ベテイ迷探偵 5、パテイ中大冒險 6、ポパイ子供ニュース 7、滿映ニュース 8、デパート小唄 9、パラマウントニュース 10、文化映畫 動物學藝會

優美館
七月二日より RCA發聲 大衆料金均一
米國コスマ 地球下の魔人 全二十五卷中 前篇 上映
新興キネマ京都大作 模範孝女の殺人 美山くみ子 主演
新興キネマ超特作 暴れ出した孫悟空

京劇 本町三丁目
廿日ヨリ七月四日マデ 上映時間表
ニュース
新興東京超特作 安來節お秀 森靜子
新興東京大作 娘たづねて三千里 上山草人 山口男
大衆席二○錢 【病院船】近日封切

若草東寶
7月2日よりの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30 1·25 4·15 7·10
繪卷すの だんだら 10·40 1·35 4·25 7·20
死鬪 ルケイン大將 11·55 2·50 5·40 8·35
エノ ワシワン 12·25 3·20 6·10 9·05
御婦人の方は階上を御利用下さい

新富座
六月卅日ヨリ七月三日 晝夜二回 一時七時卅分 大衆席 二十錢均一
東寶滿映協同作 白蘭の歌 前後篇大會 主演 李香蘭 長谷川一夫
新興大泉特作 母に捧ぐる歌 監督 伊奈精一 主演 美鳩まり 高野由美 杉山美子
天方小役 次週=味の勝者 電話殺人事件 察しき我が家

明治座
2日—7日上映時間表
目擊者 10·00 1·20 4·33 7·57
廣東進軍抄 11·20 2·40 5·53 9·17
阿新丸 13·06 3·26 6·50
日本バテーニュース 世界の動き 12·37 3·57 7·23
(冷房裝置完備)

桃花劇場
六月卅日ヨリ七月四日 大人四十錢 小人
メトロ特作 ターザンの猛襲 主演 ジョニイ・ワイズミユーラー
東寶 お轉婆社長
新興 田宮坊太郎